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보조사 목록의 설정에 대한 연구

박준석*

1. 머리말

한국어 조사는 어미와 더불어 한국어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문법 범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어 조사와 같은 문법 범주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언어권의 학습자가 한국어를 습득할 때 조사와 어미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학습이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학습 환경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 체계의 수립과 그 체계에 부합하는 설명 및 용례가 적절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용 문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조사의 체계, 특히 보조사의 목록 설정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의 조사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어 조사가 문법격 조사, 의미격 조사, 보조사로 분류될 때, 보조사는 문법격 조사나 의미격 조사와 달리 기원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 보조사의 목록 설정과 분류가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조사는 부사, 명사, 접미사, 동사, 어미 등의 다양한 문법 범주로부터 기원하는 예가 많다. 따라서 이들 문법 범주에서 문법화된 보조사는 일정한 환경에서는 이전의 문법 범주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특정 환경에서는 보조사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조사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특정 보조사가 보조사 목록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 문법 단위가 문법화되기 이전의 원형식이 가지고 있던 기능과 의미와는 상이한 문법 범주의 기능과 의미를 새로이 갖는다면 해당 문법 단위에 대한 문법 범주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밖에’는 ‘밖에 나가서 놀아라.’ <표준>로 쓰일 때는 명사 ‘밖’과 조사 ‘에’가 통합된 조사구로 분석될 수 있고,¹ ‘합격자는 너 밖에도 여

* University of Malaya, visiting professor

¹ 본고에서 필요에 의해 국어사전을 인용할 때는 다음의 사전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된 용례에서 기존 연구논저에서 제시된 것은 그 출전을 밝혔지만 몇몇 용례는 지면 관계상 출전이 생략된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가. 운평어문연구소 편(1991/1999) 금성판 국어대사전(제2판 3쇄), 금성출판사. ⇒ <금성>으로 줄임.

나. 한글학회 지음(1992/1992) 우리말큰사전(초판 2쇄), 어문각. ⇒ <한글>로 줄임.

다.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초판), 두산동아. ⇒ <표준>으로 줄임.

라.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으로 줄임.

러 명이 있다.’<표준>에서는 ‘밖에도’가 의존명사 ‘밖’과 조사 ‘에’와 보조사 ‘도’로 분석될 수 있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표준>라고 쓰일 때는 보조사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밖에’가 조사구로 쓰이거나 보조사구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밖에’가 보조사 목록에 포함되기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문법 단위에 대한 인식은 특히 한국어 교육 교재나 한국어 교육용 문법서에서 제시된 조사 목록과 한국어 문법서나 연구논저에서 제시된 조사 목록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자 개인적인 생각이나 관점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한국어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일정 정도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어학계가 문법 범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 특정한 문법 단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의미가 문법화되어 독립된 문법 범주로 특정화될 때만이 그 문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여 새로운 문법 형태를 인정하는 데 대단히 인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를 한국어 문법서나 교재에 제시된 한국어 조사의 목록이 실제 생활에 쓰이는 조사보다 훨씬 적은 수가 제시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여타의 문법 범주에서 보조사로 문법화된 형태들을 보조사의 목록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에서 기존에 보조사 목록을 설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보조사의 분포나 의미뿐만 아니라 보조사의 어원이나 형태도 보조사 목록 설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보조사 목록은 기존의 목록보다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보조사의 목록이 확장되어 설정될 때의 이점은 한국어 문법의 특징을 보다 더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개별 보조사의 기능과 의미를 학습할 때, 보조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특징뿐만 아니라, 문법화 이전의 단계, 즉 보조사의 원형식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의미도 함께 학습한다면 개별 보조사의 특징과 아울러 개별 보조사가 맺고 있는 여타 문법 범주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보조사의 문법적 지위

2.1. 보조사 목록의 특징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용 보조사 목록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논저에서 제시된 보조사 목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 대상 목록은 한국어학 연구논저와 한국어 교육 연구논저를 함께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참조한 연구 논저는 다음과 같다.

마.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2001), 연세 한국어사전(초판 5쇄), 두산동아. ⇒ <연세>로 줄임.

(1) 기존 연구논저의 보조사 목록

가. 국어 문법 연구 논저에서의 보조사 목록

- a. 최현배(1929/1994), *김고 고침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b. Yang, In-Seok(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Payhapsa.
- c. 채완(1977),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국어연구 39, 서울대.
- d. 성광수(1979), *국어 조사의 연구*, 형설출판사.
- e. 홍사만(1983/2002), *국어특수조사 신연구*, 도서출판 역락.
- f. 고영근·남기심(1985/1993),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g. 김승곤(1989), *우리말 토씨 연구*, 건국대출판부.
- h.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i. 남윤진(1997),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j. 채완(1998), *특수조사,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 k. 임홍빈(1999),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4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m.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제43집, 국어학회.

나. 한국어 교육 연구 논저에서의 보조사 목록

- a. Ihm, Ho Bin et al (2001), *Korean Grammar for International Learners*, Yonsei University Press.
- b.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 c.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 d. 한재영 외(2008), *한국어 문법 교육*, 태학사.
- e. Jaehoon Yeon and Lucien Brown(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New York: Routledge.

(1)의 연구논저는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논저 중에서 조사 전체나 보조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보조사 목록 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들 보조사 목록에서 나타난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연구 대상 보조사 목록에서 나타난 특징

- 가. 모든 목록에서 제시된 보조사: 까지, 도, 만, 은/는, 이나, 조차
- 나. 10곳 이상의 목록에서 제시된 보조사: 마다, 마저, 밖에, 부터,

뿐, 이나마, 이라도, 이야, 이야말로.

다. 5~9곳의 목록에서 제시된 보조사: 깨나, 다가, 대로, 따라, 이든지, 인들, 일랑, 커녕.

라. 2~4곳의 목록에서 제시된 보조사: 들, 만큼, 서, 요, 이라고, 이란, 처럼, 치고, 같이, 그래, 그려, 보다, 씩, 이든, 이라, 이라면, 이라야, 인즉, 쯤, 곧, 마는, 만치, 말고, 사, 썬, 으로서야, 이고, 이라고는, 인즉슨, 토록.

마. 1곳의 목록에서 제시된 보조사: 가량, 가운데, 갓고, 고, 꺼정, 쫓, 께, 풀, 풀, 끼리, 더러, 마냥, 마따나, 만은, 만치도, 만큼은, 말고는, 말고도, 보고, 보다는, 보다야, 사말고, 시피, 안으로, 예서부터, 예야, 예야말로, 으라고, 으로, 으로는, 으로부터, 으로서, 으로서도, 으마고, 을/를, 읍시사고, 이/가, 이거나, 이건, 이기로서니, 이든가, 이라곤, 이라든지, 이라서, 이랍시고, 이면, 인가, 인지, 일랑은, 입쇼, 자고, 짜리, 치고는, 치고서, 치고서는, 치고서야, 치, 선, 치고야, 치곤, 하고는, 하곤.

(1)의 연구 논저에서 제시된 보조사 목록 중에서, 모든 연구 논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보조사는 (2가)의 6개의 보조사이다. (2라)의 보조사는 보조사의 분포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접미사나 의존명사로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이다. 다만 ‘요’가 아주 제한된 보조사 목록에서 나타나는 것은 ‘요’가 보조사로서의 연구 대상이 아닌 경향에 의한 것으로 추론된다. (2마)의 보조사는 복합보조사나 통합보조사가 단연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² 이들 보조사가 보조사로 문법화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보조사의 목록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 (2마)의 목록에서 주목이 가는 보조사는 기존에 격조사로 불리던 ‘이/가’와 ‘을/를’이다. ‘이/가’와 ‘을/를’이 보조사 목록에 반영된 경우는 임홍빈(1999: 21)의 보조사 목록이다. 예를 들어, ‘그가 손이 크다’의 ‘그가’의 ‘가’와 ‘그를 머리를 때렸다’의 ‘그를’의 ‘를’을 보조사로 분류한 것으로 기존에는 격조사로 분류되던 것을 보조사의 목록에 포함시킨 경우이다.

2.2. 보조사의 분류 방식

2.3.1. 분포에 의한 보조사의 분류 방식

지금까지 보조사의 목록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보조사의 분포였다. 보조사가 분포에 의해서 분류될 때, 보조사의 체계뿐만 아니라 한국어 조사 체계 전체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보조사의 분

² 본 연구는 보조사가 하위 분류될 필요가 있을 때, 하위 분류된 보조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단일보조사, 복합보조사, 통합보조사 등의 용어로 달리 사용한다. 단일보조사는 더 이상 분석될 수 없고, 고유한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사가 해당되고, 복합보조사는 재분석의 방법으로 분석되지만 하나의 단위처럼 인식되는 보조사이고, 통합보조사는 형태 분석이 가능한 보조사구가 해당된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어미를 분류할 때 사용된 방식에서 원용된 것으로 재분석의 방법에 의한 어미에 대한 분류는 서태룡(1988: 10-11)과 박준석(2004: 15-16)을 참조.

류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임홍빈(1999)에서 격조사 ‘이/가’와 ‘을/를’이 보조사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목정수(1998, 2003, 2009나), 고석주(2000) 등에서는 격조사로 분류되었던 ‘이/가’, ‘을/를’, ‘의’를 격조사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가’, ‘을/를’, ‘의’는 문법적 관계보다는 담화·화용적 관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논문에서는 보조사의 분류가 분포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고 형태나 어원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여 보조사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보조사 목록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분포에 의한 보조사의 분류에다가 보조사의 형태와 어원이 고려된 보조사의 목록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보조사 목록과 해당 목록의 분포를 정밀하게 고찰하기 시작한 논저는 Yang(1972)이 대표적이며 이후의 논저들, 김영희(1974: 273), 홍사만(1979/2002: 28), 남윤진(1999), 임동훈(2004) 등에서 나타나는 분류 방식도 Yang(1972)의 분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보조사 목록의 갯수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다. 다음은 Yang(1972)에서 제시된 보조사의 분류이다.

(3) Yang, In-Seok(1972: 59)

가. X: mace, mata, kkaci, puthe.

나. Y: man, cocha, pakkey.

다. Z: (n)un, to, (i)ya, (i)na, (i)lato, (i)yamalo.

Yang(1972)의 보조사 분류에서 가장 큰 특징은 (3다)의 ‘는, 도, (이)야, (이)라도, (이)야말로’가 가장 후행하여 분포하는 보조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보조사의 분류에서 기존에 격조사로 분류되었던 ‘이/가’와 ‘을/를’이 주제화 기능이 있음을 밝히고(임홍빈, 1972) 그것을 보조사 체계 내로 편입시켜 분류한 예는 임홍빈(1999)가 있다. 다음은 임홍빈(1999)의 보조사 분류 방식이다.

(4) 임홍빈(1999)

가. 전형적인 보조사

a. 앞보조사(BH): 만, 부터, 조차, 까지, 마저, 마다, 만큼, 나마 /이나마

b. 가운데 보조사(MH): 은/는, 도, 나/이나, 라도/이라도, 야말로/이야말로, 은들/느들/인들, 이/가, 을/를

c. 뒤보조사(PH, 초보조사): 요/이요, 야/이야, 들.

나. 분포 제약이 있는 보조사: 대로, 르랑/을랑, 르랑/일랑, 란/이랑, 라고는/이라고는, 만치, 밖에, 커녕/은커녕, 깨나, 따라.

다. 분포 제약이 크게 있는 보조사: 그려, 그래, 다가, 마는, 뿐, 서, 곧.

임흥빈(1999)의 보조사 분류의 특징은 격조사 ‘이/가’와 ‘을/를’을 보조사로 명시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격조사 ‘이/가’와 ‘을/를’을 보조사로 분류함으로써 조사 체계 내에서 ‘이/가’와 ‘을/를’은 격조사로도 나타나고 보조사로도 분류되어, 결과적으로 이중적인 분류가 되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분류 체계를 극복하고자 시도된 예가 목정수(1998, 2003, 2009나)와 고석주(2000) 등이다. 목정수(1998, 2003, 2009나)의 일련의 논의와 고석주(2000)의 보조사 분류의 특징은 기존에 격조사로 간주되었던 ‘이/가’, ‘을/를’이 더 이상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보다는 담화·화용적 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우이다.³ 따라서 한국어 조사 체계에서 격조사 ‘이/가’, ‘을/를’은 ‘은/는’, ‘도’와 함께 ‘한정조사(=관사)’(목정수, 1998, 2003, 2009나), ‘양태 조사’(고석주, 2000)로 분류되었다. 기존에 격조사로 분류되던 ‘이/가’, ‘을/를’, ‘의’가 ‘은/는’, ‘도’와 함께 ‘한정조사(=관사)’나 ‘양태 조사’로 분류될 때에는 한국어 조사 체계가 새로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격조사, 후치사, 첨사로 분류되던 임동훈(2004)의 조사 체계와 목정수(1998, 2003, 2009나), 고석주(2000)의 조사 체계를 대비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조사	임동훈(2004)	목정수(2003)	고석주(2000)
이/가, 을/를	문법격		
의	문법격		기능조사(관형화소)
에, 에서, 으로	의미격	격어미	기능조사(부사화소)
서, 부터	후치사	후치사	한정 조사(?)
만	후치사	질화사	한정 조사(?)
이/가, 을/를		한정조사	양태 조사
의		한정조사	
은/는, 도	첨사	한정조사	양태 조사
요	-	종조사	양태 조사

표1. <조사 체계 내에서의 보조사 지위>

<표1>에서 임동훈(2004)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조사 체계가 일정 부분 수용되면서 보조사에 대해서는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후치사와 첨사로 구분되었다. 목정수(1998, 2003, 2009나)의 일련의 논저에서는 기존에 격조사로 분류되던 ‘이/가’, ‘은/을’, ‘의’가 분포 환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은/는’, ‘도’ 등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기준으로 하여 이들을 ‘한정 조사’

³ 목정수(1998, 2003, 2009나)와 고석주(2000)의 논의가 격조사 ‘이/가’, ‘을/를’이 기존의 논저에서는 고유한 보조사로 간주되던 ‘은/는’, ‘도’ 등과 분포 환경이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는 일치하지만 용어의 사용과 논의의 토대 및 그 결과가 많은 부분에 차이가 나타난다. 그 중에서 가장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목정수의 일련의 논의에서는 기존에 속격조사로 분류되던 ‘의’도 ‘은/는’, ‘도’와 함께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지만 고석주(2000)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로 분류하여 더 이상 격조사라는 범주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다. 고석주(2000)의 조사 분류는 목정수(2003)와 유사하지만 ‘의’의 분류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표1>에서 조사의 하위 분류에 사용된 용어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상이한 범주에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므로 명명된 용어를 통하여 조사의 하위 분류에 대한 특징을 아울러 살필 수 있다. 임동훈(2004)은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조사의 하위 분류에서는 문법격, 의미격라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나 보조사는 분포, 기능, 결합 유형 등의 특징에 따라 후치사와 첨사라는 하위 분류명을 사용하였다. 목정수(2003)에서는 의미격이 격어미로 대체되고 보조사는 후치사, 질화사로 하위 분류되었으며 ‘이/가’, ‘을/를’, ‘은/는’, ‘도’ 등이 통합된 단위는 한정조사로 새로이 명명되고 한정조사에 후행 통합하는 ‘요’에 대해서는 ‘종조사’이라고 명명되었다. 기존의 격조사와 첨사를 통합하여 한정조사로 단일화한 시도는 조사의 분류에서 혁신적이었으나 의미와 기능에 따라 보조사를 또다시 후치사와 질화사로 세분화하고 ‘요’를 종조사로 나뉜 것은 보조사의 하위 분류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경우라 할 수 있다. 고석주(2000)의 분류는 조사의 기능과 의미에 따라 기능조사, 한정 조사(?), 양태 조사로 분류하여 조사의 하위 분류 체계를 단순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⁴

2.3.2. 의미에 의한 분류 방식

의미에 따라 보조사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방식에는,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는 홍사만(1972/2002), 고영근·남기심(1985/1993), 허웅(1995) 등이 있고, 한국어 교육 논저에서는 Jaehoon Yeon and Lucien Brown(2011)이 있다. 우선 홍사만(1972/2002)에서 분류된 방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홍사만(1979/2002: 36~44)

가. 표별기능(表別機能): 는, 만, 나, 야, 라도, 나마

나. 협수기능(協隨機能): 도, 조차, 까지, 마저

(5)의 분류 방식을 채택한 경우는 고영근·남기심(1985/1993)이 있고, 고영근·남기심(1985/1993: 414)에서 표별(表別)과 협수(協隨)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즉, 표별은 “같은 동아리에 드는 자매항목들과 다른 가치를 띠었

⁴ 본 연구자는 조사와 어미를 별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조사는 어미와 형태 및 기능 상에서 유사한 점이 많이 드러나므로 궁극적으로 조사와 어미를 별개의 범주로 분리할 필요가 없이 어미 범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사의 하위 분류에 사용되던 용어도 어미체계 내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보조사 목록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용어들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 조사와 어미의 상관성과 조사와 어미 범주가 통합되어야 함을 주장한 서태룡(2006)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고 조사와 어미의 통합 범주를 “교착어미”로 부르고 있다. 조사와 어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서태룡(1996, 2006) 등을 참조.

음을, 협수란 같은 동아리에 드는 자매항목들과 같은 가치를 띠었음을 각각 의미한다”고 하였다. 고영근·남기심(1985/1993: 414)에서 제시된 분류는 다음과 같다.

(6) 고영근·남기심(1985/1993: 414)

- 가. 표별: 은/는, 이나/나, 만, 이야(말로)/야(말로), 부터, 이든지/든지, 이라도/라도, 이나마/나마, 인들/ㄴ들, 밖에, 을랑/랑
나. 협수: 도, 까지, 마저, 조차, 서건

홍사만(1972/2002), 고영근·남기심(1985/1993)의 보조사 분류 방식은 표별에 해당되는 보조사의 의미를 더 이상 세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었지만 이들을 의미에 따라 또다시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조사의 의미에 따라 보조사를 하위 분류한 경우는 허웅(1995)이 있다. 허웅(1995)은 보조사를 ‘도움토’와 ‘특수토씨(특수토)’로 구분하였다. 허웅(1995: 1386)에서는 ‘도움토’는 “주로 낱말에 의지하여, 말도막 사이의 관계개념을 나타내지 않고, 말의 뜻을 한층 정밀하게 나타내는 데 봉사하는 토”이고 “덧보태는 뜻”에 따라 “안음성(포용성), 열안성(한계성), 만족도, 확실성”의 네 가지로 하위 분류되었다. 허웅(1995)에서 보조사가 ‘도움토’와 ‘특수토씨(특수토)’로 하위 분류된 것은 분포와 의미라는 기준이 함께 고려된 것이다. 다음은 허웅(1995)에서의 ‘도움토’ 분류의 예이다.

(7) 가. 안음성(포용성)

a. 안음성 있음

- i. 포괄적인 것: -도, -조차, -마저, -서건, -들
ii. 개별적인 것: -마다, -씩, -꼴

b. 안음성 없음

- i. 하나만이 다름: -은/는/ㄴ, -이란, -을랑/일랑, -만, -뿐, -밖에
ii. 여럿에서 가림: -이나, -이든지, -이든가, -이거나/이건

나. 열안성(한계성)

- a. 처음을 나타냄: -부터
b. 끝을 나타냄: -까지, -꺼정, -토록

다. 만족도

- a. 넉넉함: -이나
b. 마음에 덜 참: -이나마, -이라도/이래도

라. 확실성

- a. 확실함-힘주어 지정함(강조): -이야, -이야말로, -이러야(이래야)/이어야, -이사(말고), -인즉(슨), -이면, -다(가), -곧, -서, -따라, -이라고, -이라, -이기로(서)니
b. 불확실함-꼭 꼬집어 지정할 수 없음: -인가, -인지, -이고, -인들, -쯤, -깨나, -이라면.

반면에 ‘특수토’는 “원칙적으로 마디에 붙는다. 다만 끝의 ‘-요’만은 낱말에 붙는 일도 있기는 하나, 그러나 이것도 대개는 마디에 붙는다”(허웅, 1995: 1489)고 하였다.

(8) 가. 높임을 나타냄(높임특수토): 요

나. 높임 아님

a. 끝맺음(마침특수토): 그러/(구려), 그래

b. 끝맺지 않음

i. 이음(이음특수토): 마는/만

ii. 안김

① 따옴특수토

. 서술: -다고/라고, -ㄴ/는다고, -느니라고/으니라고, -으마고, -노라고

. 물음: -는가고/은가고, -느냐고/으냐고

. 시킴: -으라고, -읍시사고

. 함께: -자고, -이라고, -이라

② 어찌특수토: 시피

허웅(1995)의 보조사 분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연구논저에서와 달리 보조사 목록의 개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거론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용 문법서에서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사를 분류한 경우는 Jaehoon Yeon and Lucien Brown(2011)이 있다. 다음은 Jaehoon Yeon and Lucien Brown(2011)에서 제시된 보조사의 분류이다.

(9) 가. The plural paricle: 들

나. Particles of topic and focus

a. The topic particle 은/는

b. (이)야

c. (이)야말로

다. Particles of extent: 만, 뿐, 밖에, 부터, 까지, 도, 조차, 마저, (은/는)커녕

라. Particles of frequency: 마다, 씩

마. Particles of approximation and optionality: 쯤, (이)나

바. Particles of comparison and contrast: 처럼, 같이, 만큼, 보다, 따라, 대로

Jaehoon Yeon and Lucien Brown(2011)의 보조사 분류의 특징은 기존의 연구논저에서 보조사로 인식되던 대표적인 보조사를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보조사의 의미와 체계를 간략히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사를 학습할 때 해당 보조사의 원형식의 범주에서의 설명에서 보조사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어 교육용 보조사 목록

3.1. 어원과 형태에 의한 보조사의 분류

보조사는 분포와 의미에 따라 하위 분류될 수 있고, 그 기준에 덧붙여 어원이나 형태에 의해서도 분류될 수 있다.⁵ 어원이나 형태에 따라서 보조사를 분류하면 개별 보조사의 어원이나 형태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원형식과 보조사의 의미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한국어사의 관점에서는 보조사로의 문법화 과정이 설명될 수 있으나 현대 한국어만으로 공식적으로 설명되기가 어려운 몇몇 형태들(‘까지, 처럼, 서건 등’)이 있어 이들 형태들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식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은 어원이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사를 하위 분류하여 그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⁶

(10) 가. 부사: 같이, 곧, 마냥, 마저, 보다, 이야말로.

나. 감탄사: 이야/야/사, 그래, 그러.

다. 명사: 까지, 대로, 만, 만치, 만큼, 밖에, 뿐, 커녕/은커녕/는커녕/ㄴ커녕, 처럼.

라. 접미사: 가랑, 깨나, 깃, 께, 풀, 끼리, 들, 따위, 씩, 어치, 짜리, 쫘, 쩌.

마. 동사: 갖고, 더러, 따라, 말고, 보고, 부터, 마는, 마다, 마따나, 서, 서건, 이라고, 조차, 치고, 하고, 하며.

바. 어미

a. 종결어미: 입쇼, 으마고, 읍시사고, 이라, 인가

b. 연결어미: 다가, 시피, 이거나, 이건, 이고, 이기로니, 이기로서니, 이나, 이나마, 이니, 이든, 이든가, 이든지, 이라든가, 이라든지, 이라도, 이라면, 이라서, 이라야, 이라야만, 이랍시고, 이랑, 이며, 이면, 이요/요, 인들, 인즉, 인즉슨, 인지, 일랑.

사. 격조사: 이/가, 을/를, 의.

아. 보조사: 은/는, 도.

⁵ 조사를 하위 분류할 때 형태를 기준으로 한 연구는 Park(2011, 2012)를 참조할 수 있다. Park(2011)은 한국어 부사적 체계를 형태적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Park(2012)는 조사 ‘에’와 형태적으로 관련된 조사들에 대한 연구이다.

⁶ 보조사로 문법화되기 이전의 단계인 원형식에 대한 문법 범주는 현행 한국어교육에서 통용되는 품사나 문법 범주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지면 관계상 해당 품사나 범주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지는 않는다. 또한 어원을 제시할 때 현대국어 화자가 문법화되기 이전의 원형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진 경우에는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형식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사 연구에서의 문법화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과는 일정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자. 복합보조사

- a. 말곤, 보단, 으론, 이란, 이라곤, 라곤, 치곤, 치고선, 하곤.
- b. 말고는, 보다는, 으로는, 이라는, 이라고는, 라고는, 치고는, 치고서는, 하고는.
- c. 만은, 만큼은, 일랑은.
- d. 보다가, 으로서야, 새로야, 치고야, 치고서야.
- e. 으로서도.

(10)의 보조사 목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조사 체계 내에서 보조사의 지위와 보조사의 의미와 기능이 어떠한 문법 단위와 연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 준다. 즉, 문법화가 완료된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의 형태와 문법화되기 이전의 보조사의 원형식의 형태를 통하여 각각의 기능과 의미를 아울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10자)의 복합보조사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의 통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10자)의 복합보조사의 마지막 구성요소로는 ‘은/는, 도, 야’만이 나타나고 기타의 보조사는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복합보조사의 마지막 구성요소로 나타나는 ‘은/는, 도, 야’ 등은 기존에 격조사로 분류되었던 ‘이/가, 을/를, 의’ 등으로 교체될 수 있으나 공기할 없다는 제약에 의해서 ‘은/는, 도, 야’는 ‘이/가, 을/를, 의’와 동일한 범주로 묶일 필요가 있고 여타의 범주에서 문법화된 보조사와 다르게 묶일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10)의 보조사 목록에서 기존에 보조사로 불리던 ‘은/는, 도’를 제외한 그 이외의 보조사는 문법화라는 기제에 의해서 형성된 보조사이고 보조사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던 보조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와 어미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문법 단위는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한 단일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형태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구체적인 의미보다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조사는 격조사로 분류되었던 ‘이/가’, ‘을/를’, ‘의’와 의미격조사로 분류되었던 ‘에’와 보조사의 ‘은/는, 도, 야’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여타의 범주에서 문법화된 보조사는 근원적으로 보조사가 아니고 여타의 문법 단위가 문법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으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보조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문법화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10)의 목록에서 보조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은/는’과 ‘도’만이 해당될 것이다.

3.2. 한국어 교육에서의 보조사의 학습 방안

한국어 교육에서의 보조사 목록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그 목록이 학습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조사로 문법화되기 이전의 원형식과 문법화된 보조사의 의미와 기능에서 공통(유사)점과 차이

점을 함께 교수 학습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어 조사 체계 내에서 보조사의 지위와 여타의 조사의 하위 범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인 용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한국어 조사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절에서는 한국어 교육 및 학습 현장에서 보조사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때 그 원형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일례를 통하여 보조사로의 문법화 이전의 원형식과 보조사로의 문법화 완료 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 교육 및 학습 현장에서 잘못된 문법화 정보가 제공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보조사 ‘밖에’가 해당된다.⁷ 대부분의 한국어 문법서에서는 보조사 ‘밖에’를 명사 ‘밖’과 조사 ‘에’로 분석되는 조사구 ‘밖에’가 보조사 ‘밖에’로 직접적으로 문법화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의존명사 ‘밖’과 ‘조사 ‘에’에서 문법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학습자가 명사 ‘밖’의 의미와 보조사 ‘밖에’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현대 한국어에서 보조사 ‘밖에’와 관련된 형태는 다음과 같다.⁸

⁷ 보조사 ‘밖에’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및 통시적 연구는 김건희(2009)를 참조하고, ‘밖에’의 양화적 특징을 ‘외에’와 비교한 연구는 김지은(2013)을 참조하고, ‘밖에’와 일본어 ‘しか’와의 대조연구는 조애숙(2007)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밖에’에 대한 문법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핀 연구는 한용운(2003: 90-94)을 참조할 수 있다.

⁸ 김건희(2009: 135)는 ‘밖에’의 문법화를 “명사구와 서술부의 문법화”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명사구에서는 일찍이 문법화가 시작되어 [한정]의 보조사로 문법화가 완결된 반면, 서술부에서는 현대 국어 시기로 와서 다시 [한정]이 [(부정)가능성]의 양태어미로 문법화가 진행” 되었다고 보았다. 다음은 김건희(2009: 136)에서 제시된 ‘밖에’의 문법화 과정이다.

(52) 명사구 ‘밖에’의 문법화

의미 확장: 구체적 장소 > 추상적 장소 > 제외 > 한정
문법 범주: 명사+격조사 > 후치사(부사구 형성) > 보조사

(53) ‘의존명사(수)+밖에, 관형형 어미+밖에’의 문법화

의미 확장: 한정 > (부정) 가능성
문법 범주: 보조사 > 양태어미

김건희(2009)은 ‘밖에’가 이원적으로 문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명사구에 ‘밖에’가 통합된 형식이 우선적으로 ‘후치사(부사구 형성)’, 즉 의존구성 ‘밖에’로 형성되고 이것이 접미사 ‘밖에’로 문법화되고 그 이후에 ‘보조사’로 문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립명사 ‘밖’과 의존명사 ‘밖’이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보조사 ‘밖에’로 문법화된 요소는 수식 명사와 피수식 명사의 복합어 구성 형식에 피수식 명사의 위치에 오는 의존명사 ‘밖’과 조사 ‘에’가 통합된 조사구 ‘밖에’가 아니라 관형형어미 ‘-ㄴ’에 후행 결합되던 의존명사 ‘밖’과 조사 ‘에’가 통합된 조사구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ㄴ#밖에’ 구성은 한편으로는 종결어미 ‘-ㄴ밖에’로 문법화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ㄴ#밖에’의 ‘밖에’가 보조사 ‘밖에’로 문법화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에서 명사나 대명사에 휴지 없이, 선행 명사구에 직접 통합된 ‘밖에’에서 조사 ‘에’가 미실현(=생략)될 수 있거나 ‘밖’이

(11) 가. 밖 vs. 바깥: 자립명사, 의존명사.

나. 관형형어미#의존 명사(밖)+ 조사(에): ‘-(으)ㄴ 밖에’.

다. 관형형어미#의존명사+ 보조사(밖에): ‘-(으)ㄴ {수/것/테}밖에’.

라. 자립명사+ 보조사(밖에): ‘생각밖에’ vs. ‘생각 밖에’

마. 종결어미: ‘-(으)ㄴ밖에’.

명사 ‘밖’은 ‘안’에 상대되는 의미로 쓰이며,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선 쪽’이나 ‘겉’이 되는 쪽. 또는 그런 부분’<표준>으로 뜻풀이된다. ‘밖’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서 ‘밖’에서 파생된 명사가 (11가)의 ‘바깥’이 있다. ‘바깥’은 ‘밖’에서 파생된 형태로 복합명사(바깥세상/*밖세상, 바깥양반/*밖양반, 바깥주인/*밖주인 등)를 형성할 때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고(임홍빈, 1993/2002: 313-314), ‘밖’과 ‘바깥’이 현대국어에서는 자립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의존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밖’이 의존명사로 쓰이고 있는 예로 관형형어미와 결합된 (11나)의 ‘-(으)ㄴ 밖에’ 형식이 있고, (11나)의 형식이 종결어미로 문법화된 경우가 (11마)의 ‘-(으)ㄴ밖에’가 있다. ‘밖에’가 보조사로 쓰이고 있는 경우는 (11다)와 (11라)가 있다.

‘밖’에 ‘에’가 통합된 ‘밖에’가 보조사로 문법화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에 앞서, 명사 ‘밖’과 ‘바깥’에 대해서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다음은 ‘밖’과 ‘바깥’의 용례이다.

(12) 가. Q: 어디 가? A: 바깥/*밖.

가’. Q: 어디에 가? A: 바깥에/밖에

나. Q: 밖/바깥으로 어떻게 나가요? A: 저쪽으로 나가세요.

나’. 교실 바깥/교실 밖에는 비가 와요.

다. 바깥 날씨/*밖 날씨는 어때요?

라. 창 ?바깥/밖을 보라.

마. 선생님 눈 *바깥/밖에 나지 마라.

‘밖’과 ‘바깥’은 현대국어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밖’과 ‘바깥’이 자립명사로 쓰이며 조사가 통합될 때는 (12나)와 같이 ‘밖’이 ‘바깥’보다 구어체에서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12가)처럼 ‘밖’과 ‘바깥’이 조사가 통합되지 않은채 단독으로 발화될 때는 ‘바깥’은 가능하지만 ‘밖’은 불가능하다. (12가, 나)에서 확인되는 것은 ‘바깥’이 ‘밖’보다 더 자립성을 가진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밖’과 ‘바깥’이 명사 복합 형식의 구성 요소로 나타나는 (12나’~마)에서 ‘밖’과 ‘바깥’의 제약 사항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명사 수식어와 명사 피수식어 형식에서 ‘바깥’은 피수식어 위치에 오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밖’은 수식

의존명사 ‘외’로 교체될 수 있는 모든 용례들은 보조사 ‘밖에’에 해당되는 용례가 아니라 의존명사 ‘밖’에 조사 ‘에’가 통합된 조사구라고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용례는 보조사 ‘밖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례가 아니므로 보조사 ‘밖에’의 용례에서 제외시켜한 한다고 본다.

어 위치에 오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바깥’은 자립명사의 특징이 ‘밖’보다 다소 더 나타나고, ‘밖’은 의존명사의 특징이 ‘바깥’보다 더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밖’이 의존명사로만 나타나는 용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3) 가. 그녀는 기대 *바깥/밖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표준>

내 능력 *바깥/밖의 일이다.<표준>

나. 이 {*바깥/밖}에 많은 다른 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국립국어원(2005: 496)>

합격자는 너 {*바깥/밖}에도 여러 명이 있다.<표준>

(13)은 ‘밖’이 의존 명사로 쓰인 것으로, (13가)의 ‘밖’은 자립 명사에 후행하는 피수식어 명사 위치에 쓰인 의존 명사이고, (13나)의 ‘밖’은 대명사 ‘이, 너’ 등에 후행하는 피수식어 명사 위치에 쓰인 의존 명사이다. (13)의 ‘밖’이 의존명사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형식은 관형형어미 ‘-(으)ㄴ’에 후행 결합하는 ‘밖’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관형형어미 ‘-(으)ㄴ’에 후행하는 ‘밖’과 그 결합형이 종결어미 ‘-(으)ㄴ밖에’로 문법화된 용례이다.

(14) 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밖에 더 있나? (채완, 1995: 15, 1998: 123)

나. 그렇게 말하면, 옳다고 할밖에/*할바깥에. (임홍빈, 1993/2002: 314)

다.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놓을밖에.<표준>

(14가)의 ‘밖에’는 채완(1998: 123)에서는 “용언의 관형형의 수식을 받는 환경이 있어서 조사로 보는 데 장애가 있다. 또 의미상으로도 ‘밖’의 기본 의미인 “外”에서 크게 멀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 조사로 보기도 하는 명사나 의존명사에 ‘에’가 붙어 의미가 특수화된 예들(김에, 마당에, 바람에, 세상에, 중에, 터에, 통에, 판국에, ...)과 같이 묶어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14나, 다)는 ‘-(으)ㄴ 밖에’의 형식이 종결어미 ‘-(으)ㄴ밖에’로 문법화된 용례이다. 종결어미 ‘-(으)ㄴ밖에’는 <표준>에서 표제항 ‘-을밖에’로 제시되고 “-을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뜻풀이되면서 해당 용례로 제시된 것이다. 다음은 (14)의 용례에서 의존명사 ‘수’가 실현된 뒤에 ‘밖에’가 보조사로 실현된 용례이다.

(15) 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밖에/참는 수밖에} 더 있나?
(다른 방법이 없는데)

나. 그렇게 말하면, 옳다고 {할 수밖에/하는 수밖에}.

라.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밖에/내놓는 수밖에}.

‘밖’이 의존명사로 실현되는 (14)보다 (15)와 같이 의존명사에 후행되어 보조사로 실현되는 것이 현대 한국어 화자의 직관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어의 용례를 다루는 대부분의 국어대사전이나 중사

전 중에서 <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전에서 더 이상 (15)와 같은 용례를 의존명사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⁹ 다음은 명사 ‘밖’과 보조사 ‘밖에’가 쓰이는 분포를 살펴 보기로 한다.

- (16) 가. 어머니는 동구 {밖/바깥/*외}에까지 따라 나오며 우리를 배
 옹하셨다.
 가’. 어머니는 동구밖에까지 따라 나오며 우리를 배옹하셨다.
 나. 합격자는 너 {밖/*바깥/외}에 여러 명이 있다.
 다. 그 {밖/*바깥/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있다.
 다’. 그 {밖/*바깥/외} 다른 것은 필요 없다/있다.
 라. 그밖에/그밖 다른 것은 필요 없다/있다.
 마.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있다.

(16가)의 ‘밖’은 자립 명사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선 쪽’<표준>으로 뜻풀이되는 용례로 명사 복합 구성에서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 ‘밖’ 사이에 휴지가 없어진 (16가’)와 같이 복합어 구성이 되더라도 ‘밖에’는 문법화된 보조사로 인식되지 않고 단지 복합어의 구성 요소로 인식된다. (16나)의 ‘밖’은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표준>로 뜻풀이되는 의존명사의 용례이다. (16가, 나)는 ‘밖’이 ‘바깥’ 혹은 ‘외’와의 교체 여부에서도 ‘밖’의 자립명사 여부를 알 수 있다. (16다)의 의존명사 ‘밖’은 의존명사 ‘외’와 교체될 수 있지만 자립명사 ‘바깥’과는 교체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용례이고, (16다’)는 (16다)에서 조사 ‘에’가 실현되지 않은 용례로 의존명사의 ‘밖’은 의존명사 ‘외’로 교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6라)의 ‘밖에’는 보조사인지 선행하는 대명사와 조사구(‘밖에’) 사이에 존재하던 휴지가 없어진 형식인지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존명사 ‘밖’에는 조사 ‘에’가 실현되지 않은 (16다’)와 견주어 보았을 때 별다른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16라)의 ‘밖에’는 의존명사 ‘밖’과 ‘조사’에 통합된 조사구임을 알 수 있다. (16마)는 ‘밖’이 의존명사로 쓰인 용례를 의존명사 ‘외’로 교체된 용례이다. 다음은 보조사 ‘밖에’의 분포이다.

- (17) 가.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 모임에 그밖에 안 왔는데요.
 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라.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마. 그 애는 타고난 대로밖에는 살 수가 없었다.

(17)의 보조사 ‘밖에’는 명사구, 부사, 조사구 등에 통합될 수 있으며 부정어 ‘안, 못, -지 않다’ 등과 공기할 수 있고 반어 의문법이 사용될 수 있으나 긍정의 평서법과는 공기할 수 없는 특징이 나타난다. (17가, 나)는 자

⁹ <연세>에서는 ‘밖’의 표제항에서 ‘-을 밖에’ 구성을 “[‘-을/르 밖에 없다’의 꼴로 쓰이어] (앞의 관형절이 나타내는 상태나 행동의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의 뜻”을 나타낸다고 풀이되고 “고생이 많으니 늙을 밖에.”가 해당 용례로 제시되었다.

립명사에 보조사 ‘밖에’가 통합된 용례이고, (17다)는 ‘밖에’가 명사형어미 ‘-기’에 통합된 용례이고, (17라)는 ‘밖에’가 부사에 통합된 용례이고, (17마)는 ‘밖에’가 조사구에 통합된 용례이다. (17)의 용례에서 ‘밖에’가 평서법으로 나타날 때는 부정어와 결합하는 것은 ‘밖에’가 선행하는 명사구를 한정하고 그 이외의 선택 사항은 원천적인 배제하기 위하여 부정어를 결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밖에’의 의미는 반어 의문법에 사용된 ‘밖에’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반어 의문법은 ‘밖에’가 선행하는 명사구를 한정하고 그 이외의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반어적으로 나타내는 서법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다음은 명사 ‘밖’의 특징과 의미이다.

(18) 명사 ‘밖’의 특징

- 가. 긍정 평서법, 부정 평서법에 모두 나타난다.
- 나. 대명사에 후행하는 조사구 ‘밖에’의 의존명사 ‘밖’은 의존명사 ‘외’와 교체가 가능하다.
- 다. 대명사에 후행하는 조사구 ‘밖에’의 조사 ‘에’가 미실현(=생략)되더라도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바뀌지 않는다.
- 라. 명사 수식어와 명사 피수식어의 복합어 구성 형식에서 수식어 위치에 올 수 없다.
- 마. 관형형어미에 후행하는 조사구 ‘밖에’의 조사 ‘에’는 미실현될 수 없고, 종결어미 ‘-(으)ㄴ/ㄴ/ㅂ/ㅅ’과 보조사 ‘밖에’로의 문법화 과정에 있는 한 단계이다.
- 바. 자립명사 ‘밖’은 ‘겉’의 의미로 나타나고 의존 명사 ‘밖’은 ‘범위 외’의 의미로 나타난다.¹⁰ 다만 관형형어미에 후행하는 ‘밖’에는 의존명사 ‘밖’은 ‘범위 외’의 의미와 보조사 ‘밖에’의 의미인 ‘배타적 한정’ (except for)으로의 이행의 전단계인 ‘반어적 한정’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¹¹

다음은 보조사 ‘밖에’의 의미와 특징이다.

(19) 보조사 ‘밖에’의 특징

- 가. 부정어 ‘안, 못, -지 않다’ 등과 공기하여 부정 평서법에 나타나고 긍정 평서법에 나타날 수 없다.
- 나. 반어 의문법에 나타날 수 있다.

¹⁰ ‘겉’ 혹은 ‘범위 바깥’의 의미는 <표준>에서 제시된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선 쪽’의 의미와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의 의미를 좀더 구체화시켜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¹¹ 국립국어원 지음(2005가: 436)에서는 보조사 ‘만, 밖에, 뿐’은 모두 “‘오직’의 의미, 다시 말해 앞말이 가리키는 대상 외에는 다른 것을 제외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고, 그러한 의미를 “‘배타적인 의미’”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좀더 상세하게 배타의 의미를 “그 앞말을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한정함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 다. 명사구, 부사, 조사구 등에 통합될 수 있다.
- 라. 보조사 ‘밖에’의 의미는 선행하는 명사구를 한정하고 후행하는 발화에서 나타나는 구성 요소를 선행하는 명사구에서 제외시키는 ‘배타적 한정’의 의미가 나타난다.

4. 맺음말

본고는 한국어 교육용 보조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로 보조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로 우선적으로 보조사 목록을 설정하고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학이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보조사 목록을 보조사의 분포와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에 의한 보조사 목록의 설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그 보조사 목록에 큰 편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의 보조사의 문법적 지위가 온전히 고려될 필요에 의해서 어원과 형태도 보조사 목록 설정 기준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분포와 의미 기준에 의한 분류 방식에 어원과 형태 기준을 덧붙여서 보조사 목록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보조사 목록은 기존에 제시된 보조사 목록과 비교했을 때 보조사 목록의 수가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장된 보조사 목록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기존에 기초적인 보조사로 분류되던 ‘은/는, 도’를 제외한 모든 형태들이 여타의 원형식에서 보조사로 문법화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보조사의 목록이 확장되므로써 한국어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한국어 조사 체계 내에서 보조사의 지위와 보조사의 의미와 기능이 어떠한 문법 단위와 연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복합보조사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의 통합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보조사 목록에서 기존에 보조사로 불리던 ‘은/는, 도’를 제외한 그 이외의 보조사는 문법화라는 기제에 의해서 형성된 보조사이고 보조사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던 보조사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한국어 교육 및 학습 현장에서 잘못된 문법화 정보가 제공되는 대표적인 예가 보조사 ‘밖에’를 대상으로 하여 자립명사 ‘밖’과 의존명사 ‘밖’과 용언의 활용형에 후행 결합하는 의존명사 ‘밖’의 구성, 즉 ‘-(으)ㄴ 밖에’ 구성과 보조사 ‘밖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결과는 기존의 한국어 문법이나 교재에서 명사 ‘밖’에 조사 ‘에’가 통합된 형태인 조사구 ‘밖에’가 보조사 ‘밖에’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보조사 ‘밖에’는 ‘-(으)ㄴ 밖에’ 구성에서 문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초점이 한정되어서 개별 보조사의 기능과 의미를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으며 한국어 조사 체계 내에서의 보조사의 문법적 지위, 더 나아가 조사와 어미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석주(2000), 한국어 조사의 연구 -‘-가’와 ‘-를’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박사논문.
- 고영근·남기심(1985/1993),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구종남(2003), 국어 부정극어의 유형, 국어문학 38, 국어문학회.
- 국립국어원(2005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체계편,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2005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용법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건희(2009), ‘밖에’의 의미와 형태: 문법화 현상을 중심으로, 어문학 104.
- 김승곤(1989), 우리말 토씨 연구, 건국대출판부.
- 김영희(1974), 조사어류의 연구, 문법연구1, 광문사.
- 김영희(2005), 부정 극성어의 허가 양상, 한국어 통사 현상의 의의, 도서출판 역락.
- 남승호(1998), 한국어 부정극어의 유형과 그 허가조건,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 남윤진(1997),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목정수(1998), 한국어 조사 {가}, {를}, {도}, {는}의 의미 체계-불어 관사와의 대응성과 관련하여-, 언어연구 18, 서울대 대학원 언어학과.
- 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 목정수(2009가), 한국어학에서 소쉬르 수용의 문제: 기음을 매개로 언어학, 53, 한국언어학회.
- 목정수(2009나), 한국어, 문법 그리고 사유, 태학사.
- 박승윤(1997), ‘밖에’의 문법화 현상, 언어 22-1, 한국언어학회.
- 박준석(2004), 국어 어미 {-느-} {-더-}의 사전 기술에 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서태룡(1988),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 서태룡(1996), 국어 문법 단위의 통사 범주, 한국어문학연구 3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 서태룡(2006), 국어 조사와 어미의 관련성, 국어학 47, 국어학회.
- 성광수(1979), 국어 조사의 연구, 형설출판사.
- 시정곤(1997a), 국어의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9, 국어국문학회.
- 시정곤(1997b), ‘밖에’의 형태-통사론, 국어학 30, 국어학회.
-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제43집, 국어학회.
- 임홍빈(1993/2002), 서울대 임홍빈 교수의 한국어 사전, 시사에듀케이션.
- 임홍빈(1999),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4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임홍빈(2007), 한국어 무조사 명사구의 통사와 의미, 국어학 49, 국어학회.
- 조애숙(2007), 韓日語 否定對極表現 「しか」「밖에」의 對照研究, 日本語文學 第34輯.
- 채완(1977),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국어연구 39, 서울대.
- 채완(1998), 특수조사,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 최규련(2000), 국어 제외 표지사 ‘밖에...’와 제외 초점사 ‘밖에...+ 부정(否定)’의 의미와 기능, 국어학 35, 국어학회.
- 최현배(1929/1994), 김고 고침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용운(2003), 언어 단위 변화화 조사화, 한국문화사.
- 한재영 외(2008), 한국어 문법 교육, 태학사.
- 허용(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홍사만(2002), 국어특수조사 신연구, 도서출판 역락.
- Ho-Min Sohn(1999/2001),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hm, Ho Bin et al (2001), Korean Grammar for International Learners, Yonsei University Press.
- Jaehoon Yeon and Lucien Brown(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New York: Routledge.
- Park Jun seok (2011), The system of adverbial case markers in Korean, Transmission and Translation Studies Agency, Shandong University, Weihai, China
- Park Jun Seok (2012),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particle ‘-e’ in Korean, The Research O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59, The Association Of The Research O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Korea.
- Yang, In-Seok(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Payhapsa.

The study of list of postpositions in Korean language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Park, Jun-seok

The Korean particle system consists of three major parts, i.e. Case markers, Postpositions, and Conjunction particles. These parts have their unique functions and meanings at the system of particles. The particles, however, are similar grammatical categories as the final endings, that is, they can be classified as endings in the final analysis. The ending phrases have one ending or more than one as the head of their own ending phrases, and these ending phrases are not only syntactic forms but also discourse factors. So this paper takes the stand that the particles, similar with endings, are not simply a combination of noun and particle that they have the functions of a phrase or sentence, but also of connecting the next constituents of the phrase, sentence or discourse in locution.

From the researcher's observation as linguists and lecturers of Korean at University of Malaya most of the students have shown difficulties in learning Korean grammar. Perhaps one of the most difficult parts for learning Korean is the system of particles. It therefore might be helpful to study this issue from a second language education perspective. If effective list of particles, i.e., postpositions, is developed based on this theory, the learning of particles is expected to be easi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effective list of postpositions, which have been collected among scholarly articles, books, and dictionaries, for learners as foreign language education.

Keywords: list of postpositions, particles, 'bakke' of postpositions, Korean language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